

C 교육대학교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사정과 학업 현황 분석

추 연 구*

춘천교육대학교

김 은 영**

춘천교육대학교

《 요 약 》

장애인 공직 임용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2005학년도부터 교육대학교 입학전형에도 장애인 특례입학이 채택되고, 장애인에 대한 입학 제한 규정이 금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C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사정 관련 자료와 입학 후 학업 현황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보다 개별화된 교수-학습 지원 및 우수한 장애인 초등교원 모집 확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입학 사정 관련 서류를 토대로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입학전형 유형, 전형 유형에 따른 등록 현황, 합격한 장애학생들의 장애 유형, 입학 점수를 분석하였다. 둘째, 장애학생들의 학업 현황에 대한 실태는 장애 유형별 희망 심화과정, 학적 변동, 장애 유형별 학업 실태, 실기관련 심화과정 이수 학생의 학업, 장애학생들의 임용고사 합격률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 학업 성취, 장애대학생, 교육대학교, 장애학생 특례입학

* 제 1저자,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chustudy@hanmail.net)

** 교신저자, 춘천교육대학교 강사 (keybrainer@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5년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당시 “교육대학에서는 초등학교의 통합교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특례 입학 실시하지 않았으며, 입학전형에 있어서도 모집요강 등에서 사실상 입학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공직 임용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2005학년도부터 교육대학교 입학전형 모집요강에도 장애인 특례입학이 반영되고, 장애인에 대한 입학 제한규정이 사라지게 되었다(춘천교육대학교, 2012: 1).”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의 확대와 더불어 먼저 장애학생 선발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환기 외(2004)의 연구에서는 “선발된 장애학생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생 적응 중 학업적 적응은 장애대학생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김동일 외, 2011; 김미선, 2011; 김미선, 박중휘, 2013; 오윤진, 이순민, 2013; 윤민우, 황경열, 2014; 이정애, 최웅용, 2010). 특히 일반대학교의 경우 “특별전형 제도로 입학한 장애학생들의 재학 중 평균 성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비장애학생들과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수, 2009).”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학교 등의 지원관계가 비교적 잘 구축된 이전의 초·중·고등학교 환경과는 달리, 학생 자신이 스스로 학업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나가야 하는 대학 환경에서 학생들은 중도포기, 휴학, 재적 등 학업 관련 부적응을 보이기도 한다(이웅 외, 2011).” 따라서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 장애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은 어떠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김정은, 2013).”

2014년 현재 전국 교육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총 149명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4: 99). 이는 장애인 초등 교원 의무고용률에도 못 미친다. 한편 응시 인원을 채워도 합격자 수가 적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초등 교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교에서 더 많은 장애학생을 선발하거나, 과락이 많은 만큼 임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의 검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수한 장애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현재 2편(이성규·양숙미, 2010; 이성규 외, 2007)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두 편의 연구는 ‘장애학생 초등교원 진입 확대 방안’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업 문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한편 “교대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교대의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하여 교대 입학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성규·양숙미, 2010).”

따라서 특별전형으로 교육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의 입학 및 학업 현황에 대한 연구는, 우수한 장애학생의 초등 교원 진입 확대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5년-2015년간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C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 사정 및 학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장애학생들의 2005년-2015년간 입학 사정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다.

연구 문제 2.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장애학생들의 2005년-2015년간 입학 후 학업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다.

3.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는 C 교육대학교에서의 입학 자료와 학업 현황을 분석하였기에 모든 교육대학교의 일반적 경향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대한 타 교육대학교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2) 본 연구는 2005년-2015년이라는 제한된 기간과 33명이라는 제한된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사례수의 제한 및 개인의 익명성 보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좀 더 깊이 있는 심층 인터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C 교육대학교에서 처음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를 실시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전형에 의해 입학한 장애학생은 총 33명이다. 연구문제 1에서는 이들 33명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당시 재학하고 있던 20명의 입학 후 학업 현황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5년-2015년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의한 입학생에 대한 입학사정, 성적, 상담 자료, 진로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하여 현재까지 축적된 학업성취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일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 교육대학교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의 2003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수행되는 조사를 기초로 발간된다. 둘째, C 교육대학교의 2007년도-2014년도 통계연보를 분석하였다. 셋째, 학생처의 2004년-2010년도 입시자료를 분석하였다. 2010년까지 입학관련 업무는 학생처에서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입학처의 2011년-2015년까지의 입시자료를 분석하였다. 2011년 이후 입학관련 업무는 입학처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자료 처리

첫째,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사정과 관련된 자료는 입학연도별 입학생의 평균 및 최대값, 최소값 등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먼저, 입학 사정 관련 서류를 토대로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학전형 유형의 변화, 수시 지원과 정시 지원에 따른 등록자수 비교, 합격한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 장애학생들의 합격 점수를 분석하였다. 둘째, 장애학생들의 학업 현황은 장애유형별 희망 심화과정, 학적 변동, 장애 유형별 학업 현황, 실기관련 심화과정 이수 장애학생의 학업 현황, 장애학생들의 임용고사 합격률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후 학업 현황과 관련된 자료 중 일부는 R 3.2.2를 사용하여 기술통계에서 산출된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R 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석과 그래프 작성 등을 위하여 개발된 오픈 소스 데이터분석용 프로그램이다(장영재 등, 2014: 2).”

III. 연구결과

1. 2005년-2015년간 입학 사정과 관련된 현황

1) 대학입학 전형 유형

C 교육대학교에서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정시 특별전형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모두 수시에서 이루어졌다. 2011년도에는 지원자 중 합격자가 없었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정원 외 5명'이라는 모집 정원 내에서 수시의 특별전형으로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시에서도 추가로 특별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C 교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들의 연도별 전형 유형 및 등록 현황

		지원자수										입학자수									
		모집인원		당해 졸업		재수자		검정고시		계		당해 졸업		재수자		검정고시		계			
입학년도	전형유형	당초	조정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5	정시(특별)	5	0	1	0	0	2	0	0	1	2	1	0	0	2	0	0	1	2		
2006	정시(특별)	5	0	1	3	0	1	0	0	1	4	1	0	0	1	0	0	1	1		
2007	정시(특별)	5	0	1	0	2	1	0	0	3	1	0	1	2	0	0	0	2	1		
2008	정시(특별)	5	0	1	0	1	0	0	0	2	0	1	0	0	0	0	0	1	0		
2009	수시	10	0	3	2	2	1	0	0	5	3	1	0	0	0	0	0	1	0		
2010	수시	10	0	1	4	4	1	0	0	5	5	0	2	1	0	0	0	1	2		
2011	수시	10	0	4	4	4	0	0	0	8	4	0	0	0	0	0	0	0	0		
2012	수시	5	0	12	5	6	1	0	0	18	6	1	4	0	0	0	0	1	4		
2013	수시	5	-1	7	1	2	0	0	1	9	2	2	1	0	0	0	1	2	2		
2013	정시	0	1	1	0	1	0	0	0	2	0	1	0	0	0	0	0	1	0		
2014	수시	5	-3	11	9	4	1	0	0	15	10	0	2	0	0	0	0	0	2		
2014	정시	0	3	3	1	2	0	0	0	5	1	2	0	1	0	0	0	3	0		
2015	수시	5	-3	13	14	1	3	0	0	14	17	1	1	0	0	0	0	1	1		
2015	정시	0	3	1	1	5	0	0	0	6	1	0	1	2	0	0	0	2	1		

2) 전형 유형에 따른 등록 현황

입학 전형 유형에 따른 등록 현황은 위의 <표 1>과 같다. <표 1>의 ‘지원자수 모집인원’ 열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 보다 적지만 2009년을 시작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의 ‘입학년도’ 열의 2013년 이후 수치를 살펴보면, 수시와 정시로 전형이 다양화된 2013년 이후 지원자들은 수시에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합격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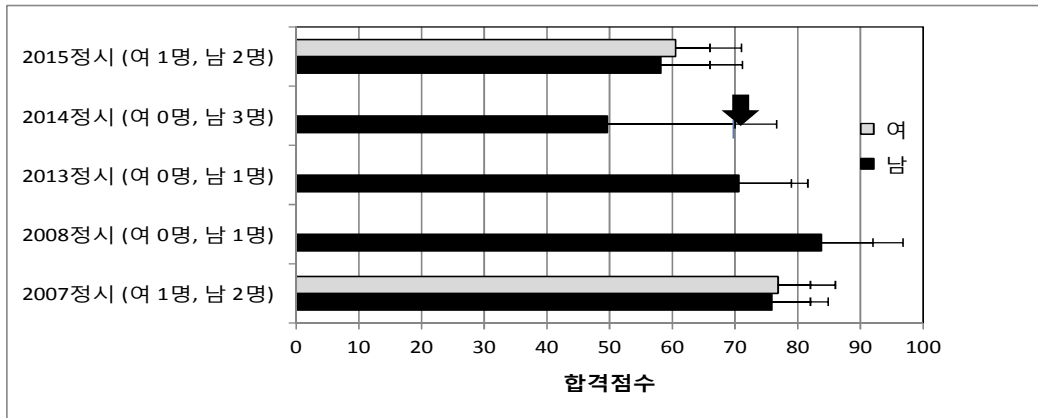
2005년-2015년간 C 교육대학교에 합격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각장애 학생은 3명(9.1%), 시각장애 학생은 11명(33.3%), 지체 및 뇌병변장애 학생은 19명(57.6%)이었다.

<표 2>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의 2005년-2015년 입학 현황

입학년도	장 애 영 역			계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	
2005	0	2	1	3
2006	1	0	1	2
2007	0	0	3	3
2008	0	1	0	1
2009	0	0	1	1
2010	0	1	2	3
2011	0	0	0	0
2012	1	1	3	5
2013	0	1	4	5
2014	0	4	1	5
2015	1	1	3	5
총 재적학생(명)	3	11	19	33
(%)	(9.1)	(33.3)	(57.6)	(100)

4) 합격한 장애학생들의 입학 점수

<그림 1>에는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정시 합격자의 연도별 입학 평균 점수를, 해당 년도 정시 입학 사정 자료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막대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림 1>에서 에러바의 윗 부분은 해당 연도 정시에 합격한 비장애 학생의 최고점수를, 아랫 부분은 해당 연도 정시에 합격한 비장애 학생의 최저점수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장애 정시합격자들의 점수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대에 장애학생들의 입학점수가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도에는 두 집단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점수는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매년 입학사정 배점이 달라 비교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림 1> C 교육대학교 ‘특별전형 특수교육’ 정시 합격자의 연도별 합격점수
(주. 에러바의 윗 부분은 해당년도 정시 비장애 합격자의 최고점, 아랫 부분은 최저점)

2.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학생들의 학업 현황

1) 장애유형별 희망 심화과정

C 교육대학교에서는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희망하는 심화과정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림 2>는 2005년~2015년 동안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학생들이 희망한 심화과정을 장애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희망 심화과정이 특정한 학과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전체 입학생 33명 중 1명은 본 연구 실시 이전에 유학으로 인하여 자퇴하였다).

15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2호)

		윤리	국어	사회	교육	수학	과학	실과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컴퓨터	총 재적학생
뇌병변	3급									1				1
	6급		1		1								1	3
지체장애	4급			1		1			1		1			4
	5급	1				1				2				4
	6급			1	2		1		1			1		6
시각장애	4급					1								1
	5급	1							1					2
	6급	1		2	1	1			1		1		1	8
청각장애	3급									1				1
	4급										1			1
	5급			1										1
총	(명)	3	1	5	4	4	1	0	4	4	3	1	2	32
재적학생	(%)	9	3	16	13	13	3	0	13	13	9	3	6	100

〈그림 2〉 C 교육대학교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합격자의 장애유형별 희망 심화과정
(주. 숫자는 해당 학과를 심화과정으로 신청한 학생의 수)

2) 학적 변동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휴학 및 제적 관련 학적 비율은 비장애 학생의 휴학 및 제적 비율보다 훨씬 낮았다. 2015년 3월에 휴학한 남학생은 2015년 9월에 복학하였다. 2013년에 제적된 여학생은 2013년 8월 유학을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장애 학생 남자의 휴학비율이 3.2%로 비장애 학생 여자의 휴학비율 1.6%보다 높은 것은 군 입대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제적관련 학적 변동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각각 0.9%와 0.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 C 교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합격자의 2007-2015년 학적변동 현황

	휴학								제적							
	특수교육대상자				비장애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비장애 학생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2007	0	0	0	0	18	2.9	34	2.1	0	0	0	0	5	0.8	12	0.7
2008	0	0	0	0	15	2.6	21	1.3	0	0	0	0	6	1.0	11	0.7
2009	0	0	0	0	13	2.3	23	1.5	0	0	0	0	8	1.4	16	1.1
2010	0	0	0	0	8	1.5	19	1.3	0	0	0	0	9	1.7	13	0.9
2011	0	0	0	0	14	2.7	21	1.7	0	0	0	0	2	0.4	15	1.2
2012	0	0	0	0	20	3.8	23	2.0	0	0	0	0	4	0.8	11	1.0
2013	0	0	0	0	24	4.4	7	0.7	0	0	1		6	1.1	8	0.8
2014	0	0	0	0	17	3.2	15	1.6	0	0	0	0	3	0.6	5	0.5
2015	1	0	0	0	26	5.4	23	2.4	0	0	0	0	1	0.2	4	0.4
계	1	0	0	0	155	3.2	186	1.6	0	0	1	0	44	0.9	9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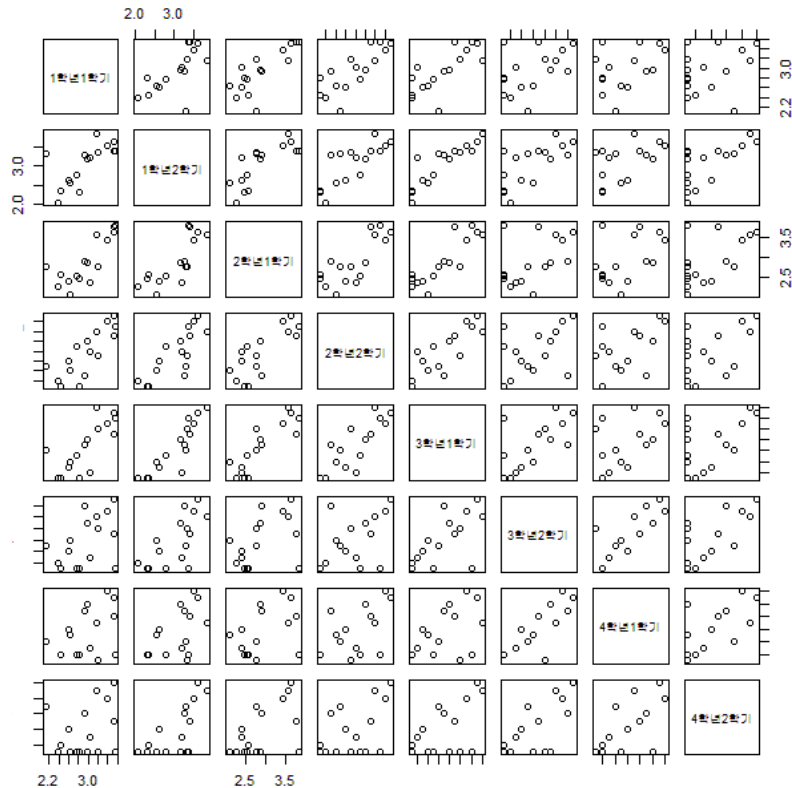
3) 장애 유형별 학업 현황

장애유형별 학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애학생들이 매학기 취득한 평점 평균의 학기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최단 2학기(1학년 과정을 마침), 최장 8학기(4학년 과정을 마침) 동안 취득한 전체 학기의 학기별 상관관계에 대한 산점도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개인내 차’라는 “개인 내의 영역 간의 불균형을 분석하여 해당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 특성의 분석(추연구, 이정남, 2012: 28)”을 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1)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그림 3>은 학년이 서로 다른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자 14명이 매학기 자신이 취득한 당해 학기 평점 평균의 학기별 상관관계를 시각화한 산점도이다. <그림 3> 산점도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1학년 1학기라는 레이블이 있다. 이는 첫 번째 줄의 y축은 1학년 1학기에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이라는 뜻이다. 산점도의 2번째 줄 2번째 칸에 1학년 2학기라는 레이블이 있다. 이는 바로 위 칸의 x축이 1학년 2학기에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이라는 뜻이다. 즉, 산점도의 첫 번째 줄 2번째 칸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1학년 1학기 성적을 y축에, 1학년 2학기 성적을 x축에 두고 두 성적의 상관관계를 본 것이다. 이때 <그림 3>에서 매학기의 성적은 직전학기의 성적과 가장 강한 선형관계를 보인다.

한편 지체장애 학생의 1학년 1학기의 성적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1학기까지의 성적과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선형성을 유지하지만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의 성적과의 선형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지체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3학년 2학과 4학년 1학기는 특별한 ‘교수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암시한다. 4학년 2학기의 성적은 어떤 학기의 성적과도 선형성이 강하지 않다. 이는 임용고사 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 공부에 대한 열의가 학생별로 이전 학기와는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림 3> C 교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취득한 학기별 성적간의 상관관계¹⁾
(주. x축과 y축의 수치는 학기별 평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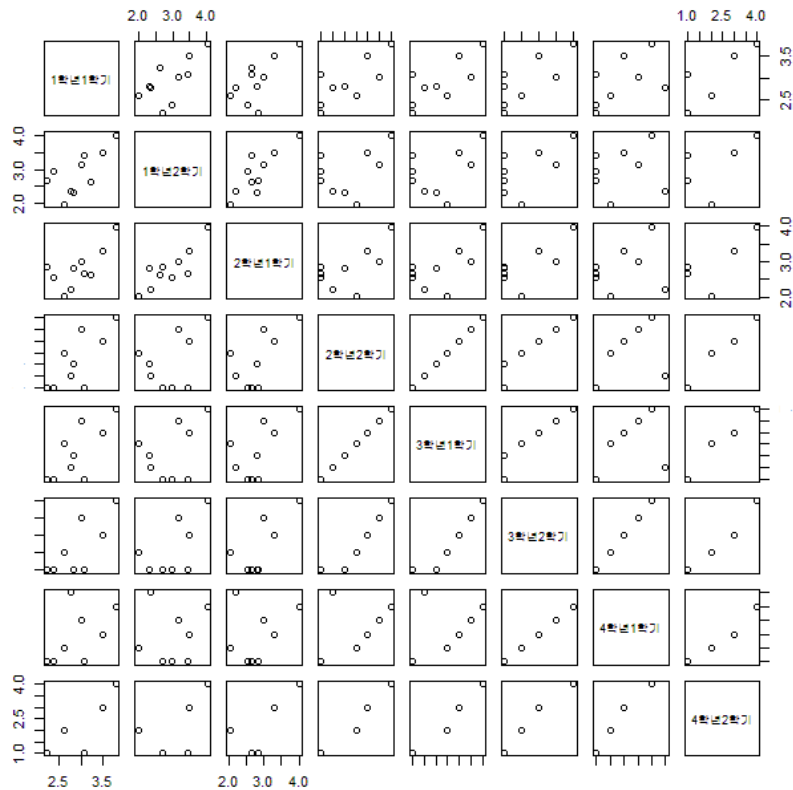
(2)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그림 4>는 학년이 서로 다른 시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9명이 매학기 자신이 취득한 당해 학기 평점 평균의 학기별 상관관계를 시각화한 산점도이다. <그림 4>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2학년 2학기 성적이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1) R 소스코드

자료를 메모장에 행렬형태로 입력한다. 따라서 저학년이어서 발생하는 결측치(즉, 아직 4학년2학기 까지의 성적이 나오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는 NA로 표시되어야 한다. 컴마로 각 자료를 구분한다. <그림 3>의 경우 자료 파일의 이름을 임의로 limbic으로 지정하였다.
limbic=read.table(file="limbic.txt") #R로 자료를 불러들인다.
pairs(limbic, labels=c("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 '라벨'의 이름을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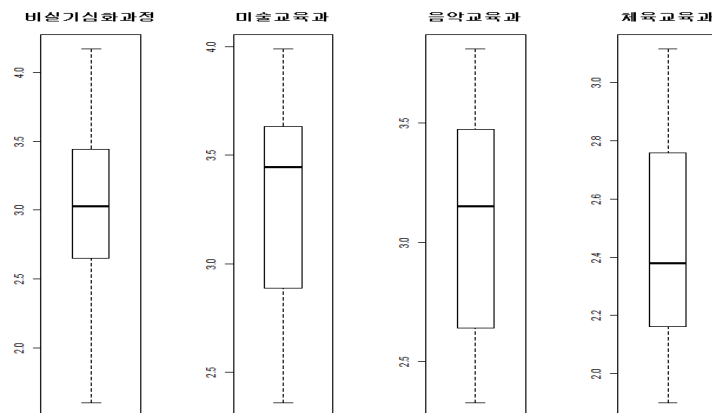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강한 선형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림 4>의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취득한 학기별 성적의 상관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1학년 1학기의 성적은 다음 학기인 1학년 2학기의 성적과 선형을 보일 뿐 나머지 학기에서는 선형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1학년 1학기의 성적으로 나머지 학기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선형모형을 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종합하면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학생들이 매학기 취득하는 학점의 경향이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잘했던 학생이 힘들어진 경우, 혹은 이전 학기에 힘들었던 학생이 잘하게 된 경우로 원인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교수적 지원’이 이 기간에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림 4> C 교육대학교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취득한 학기별 성적간의 상관관계
(주. x축과 y축의 수치는 학기별 평점 평균)

4) 실기관련 심화과정 이수 장애학생의 학업

<그림 5>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각 학기별로 취득한 평점 평균들의 분포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과와 같은 실기 관련 심화과정과 그 밖의 비실기 관련 심화과정별로 나누어 상자그림을 그린 것이다. ‘미술교육과’는 지체장애 3급이 1명, 지체장애 5급이 2명, 청각장애 3급이 1명 총 4명의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 총 26개의 분포를 상자그림으로 그렸다. ‘음악교육과’는 지체장애 4급이 2명, 시각장애 5급이 1명, 시각장애 6급이 1명 총 4명의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 총 14개의 분포를 상자그림으로 그렸다. ‘체육교육과’는 시각장애 6급 1명, 지체장애 4급 1명, 청각장애 4급 1명 총 3명의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 총 8개의 분포를 상자그림으로 그렸다. 가장 왼쪽의 ‘비실기심화과정’은 미술, 음악, 체육이 아닌 교과를 심화과정으로 선택한 서로 다른 학년의 특수교육 대상자 17명이 취득한 학점 총 119개의 분포를 상자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그림 5> C 교육대학교 실기 관련 심화과정 이수 장애학생의 학점 분석²⁾

(주. 비실기 심화과정이란 음악, 미술, 체육이 아닌 심화과정이다)

<그림 5>에서 상자그림 안의 진한 가로선은 중앙값(Median)이며 점선으로 연결된 양끝의 위와 아래는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이다. 상자로 둘러싸인 부분은 각

2) R 소스코드

메모장에 각각의 자료로 하나씩 파일 4개를 만든다(엑셀에 정리한 것을 칼럼별로 메모장에 복사)
 non=read.table(file="non.txt", header=T) #만든 파일을 R로 불러온다(제시된 코드는 비실기의 경우)
 par(mfrow=c(1,4)) #그림 영역을 4개로 지정한 후 각각을 아래의 코드로 하나씩 그려서 채운다.
 boxplot(non, main="비실기심화과정"); boxplot(art, main="미술교육과"); boxplot(music,
 main="음악교육과"); boxplot(physical, main="체육교육과")

자료의 제1사분위수(Q1)와 제3사분위수(Q3)를 나타낸다. 즉, 전체 자료의 50%가 이상자 안에 분포한다는 뜻이다. 상자그림은 자료를 순서대로 배열할 때의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각 자료의 y축 값을 동일하게 하여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은 있으나,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미술교육과,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심화과정이 아닌 다른 비실기 심화과정을 선택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받은 학점들의 중앙값은 3.04이다. 이때 미술교육과를 심화과정으로 선택한 경우의 중앙값은 3.28로 음악교육과를 선택한 경우의 3.07과 체육교육과를 선택한 경우의 2.45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실기교과를 심화과정으로 선택한 경우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의 50%(Q3-Q1)가 2.65~3.44에 있었다. 이때 미술교육과를 심화과정으로 선택한 경우는 2.9~3.6의 범위에 있어 음악교육과의 경우인 2.6~3.4, 혹은 체육교육과의 경우인 2.2~2.7보다 높았다.

5) 특수교육대상자의 임용고사 합격률 분석

<표 4>에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임용고사 합격률을 제시하였다. 2005년도 입학한 학생의 2009년 임용고사 응시를 시작으로 매년 장애학생들이 임용시험에 응시·합격하고 있다. 비록 아직 졸업하는 학생 수는 적지만 <표 4>에서 최근 비장애학생의 임용고사 합격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C 교육대학교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제도 입학생들의 임용시험 합격률

입학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졸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학생 임용 고사 합격률 (합격자/졸업생)	2/3 (66%)	1/2 (50%)	2/3 (66%)	1/1 (100%)	1/1 (100%)	2/2 (100%)	5/5 (100%)
비장애학생 임용 고사 합격률 (합격자/졸업생)	386/549 (70%)	363/551 (66%)	170/539 (32%)	257/456 (56%)	329/433 (76%)	345/426 (81%)	318/354 (90%)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C 교육대학교에서 처음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를 실시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 제도를 통하여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입학 사정 및 학업 현황 관련 1차 자료를 문헌 분석하였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이들의 교내활동 및 학습 활동 지원의 기초로써 학업현황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도출된 연구결과를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합격자들의 입학사정과 관련된 실태와 입학 후 학업 현황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입학사정과 관련된 실태

1) 대학입학 전형 유형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각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실시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 후 2003년부터 3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학생 교육 및 복지 실태 조사’를 통하여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는 보완되고 또 전국 대학으로 일반화되었다. C 교육대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대학입학 전형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지난 2005년 이후 다양한 제도적 변천을 거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입학 사정이 해마다 수정·보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전형 유형에 따른 등록현황

C 교육대학교의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전형유형에 따른 등록현황 분석 결과, ‘수시’에 지원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정시’에 지원하는 특수교육대상자보다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일반전형 지원자 보다 다소 등급이 낮아도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시 지원이 정시 지원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합격률을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수시 전형에 지원은 많이 하고 있지만 탈락하는 학생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합격자들의 장애유형

“장애유형의 다양성은 고등교육 발전 방안 중에서 장애 대학생의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윤현숙, 전병진, 2012).” C 교육대학교의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제도 합격자들의 장애 유형 분석 결과,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라는 3가지 유형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종합대학에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유형이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뿐만 아니라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이지경, 안성우, 2014)”로 다양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편 C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의 장애 정도는 각 유형별로 6급 판정을 받은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각 장애유형별 입학자들 중 장애가 가장 심한 학생의 등급은 3급이었다. 이는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장애학생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교육대학교 특별전형 입학 학생들은 “대부분 경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규, 양숙미, 2010)”

4) 합격자들의 입학점수

일반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을 지속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수옥, 2012; 윤현숙, 전병진, 2012: 262; 이경림, 박재국, 2007). 이에 대한 원인으로 출발선에서의 능력 차이가 일반학생에 비해 적지 않다는 유추를 하는 선행연구도 있다. 정시 합격자의 연도별 합격점수 평균을 정시 비장애 합격자의 점수와 비교한 결과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한편 매년 입학생이 5명 정도인 점, 상대적으로 장애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장애영역별 입학점수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입학 후 학업 현황

1) 장애유형별 희망 심화과정

교육대학교에서는 초등교육 전공의 예비교사 양성교육이 이루어진다. 즉 재학생들의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동일하다. 그러나 전체 교육과정 중 21학점(전공심화 3학점 7과목)은 국어교육, 수학교육, 음악교육 등 심화된 내용으로 나누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C 교육대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심화 과정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장애유형별 희망 심화과정에 대한 기초 자료 분석

결과, 심화과정이 본인의 선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 개 학과에만 치우치는 현상이 없었다. 이는 합격한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비장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로를 장애 유무에 영향받지 않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과 같은 실기관련 심화과정을 선택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전체 입학생 33명 중 11명으로 31%이었다. 실기관련 심화과정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은 장애유형별로 선택된 심화과정을 나누어 살펴보아도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환기 외(2004)의 연구에서 제기한, 장애대학생의 교육대학교 실기관련 교육과정 적응에 대한 우려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2) 학적변동 현황

C 교육대학교의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시 및 정시 전형 합격점수의 평균은 비장애 합격자들의 합격점수의 최저점보다 매년 5점-20점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학력이나 기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학생들은 학사 경고의 누적이나 성적 부진 등으로 휴학 내지 자퇴 등으로 학적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현실(김성애 외, 2003)”을 설명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휴학·재적과 같은 학적 변동은 C 교육대학교에서 2005년-2015년 동안 2명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 후 복학한 남학생이 1명, 유학을 위해 본교를 떠나 제적된 여학생이 1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학생들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C 교육대학교의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애유형별 학업 실태

장애 유형별 학업 실태 분석 결과 장애 영역별로 교수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다른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학부요람에 근거한 학기별 학과목의 성격 검토가 후속 연구에서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장애대학생이 대학의 학업에 적응하는 과정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일반화하기 보다는 상황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업 적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조성희, 손승현, 2013).”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각각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이 기간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즉, 이러한 결과가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이 학업으로 표현된 것인지, 교육과정의 적응에 대한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 이는 보다 개별화된 교수-학습지원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들의 대학생활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학교 정책 방향을 제언(김성애 외, 2003)”할 수 있다.

4) 실기 관련 심화과정 이수 장애학생의 학업 실태

심화과정으로 실기교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받은 학점은 비실기교과를 심화과정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받은 학점보다 낮은 것은 아니지만, 점수의 분산이 더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심화과정으로 실기교과를 선택할 때 ‘교수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심화과정으로 체육교육과를 선택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가장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5)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임용고사 합격률

C 교육대학교의 임용고사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임용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50% 이상 100%까지 분포하여 비장애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장애인교원의 비율이 전체 교원의 2%에 도달할 때까지는 교원 임용고사에 5%를 장애인으로 배정하여 장애인 교원을 별도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최종 불합격한 장애인의 객관적 직무수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는 등 장애인 교원 확충에 대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서동명 외, 2010)”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정비에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일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C 교육대학교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를 통하여 입학한 장애학생들의 입학 사정 및 입학 후 학업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문헌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입학 사정 관련 자료의 분석 결과, 첫째,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의 제도적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형 지원에 있어서는 수시 지원이 많았다. 셋째, 합격한 학생들의 장애유형은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매년 장애 합격자들의 입학 평균점수가 비장애 합격자들의 입학 평균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 후 학업 현황과 관련된 자료의 분석 결과, 첫째, 학생들의 ‘심화과정’ 선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개 학과에 치우치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과

같은 실기관련 심화과정을 선호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들의 학적 변동은 휴학·제적과 같은 변동이 거의 없이 안정적이었다. 셋째, 학생들의 장애유형별 학업 실태에 있어서는 장애 영역별로 교수적 지원이 필요한 학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들이 실기관련 심화과정에서 받고 있는 학점은 비실기 교과를 심화과정으로 선택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학점보다 낮은 것은 아니지만, 점수 변동의 폭이 더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의 임용고사 합격률은 비장애 학생들의 임용고사 합격률보다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보다 개별화된 교수-학습 지원 및 우수한 장애인 초등학교원 모집 확대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만족도 또는 대학생활 만족도 등의 개인별 특성을 장애영역별, 학년별, 성별, 입학전형별(수시 및 정시), 임용률, 임용 지역 등으로 분석하여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 유형별 입학 지원 분석과 대처를 통한 대학 환경의 유니버설 디자인화와 보편적 교육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의 준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명희, 김민정, 김혜정, 엄소연, 정혜운 (2010). 웹기반 협력학습의 상호작용 및 성취도에 대한 학습자의 협력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의 예측력 규명. **교육학연구**, 48(1), 157-180.
- 강종구 (2013).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통해 살펴본 시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연구. **시각장애연구**, 29(4), 111-230.
- 교육과학기술부 (201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교육과학기술부.
- 국립특수교육원 (2011). **2011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설명자료**. 천안: 국립특수교육원.
- 김경선, 김동일, 정소라, 이재호, 장세영 (2013). 장애·비장애 대학생의 취업준비도 특성 탐색: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3(3), 65-83.
- 김경화, 조현정 (2013). 명문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 실태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8(2), 219-243.
- 김미선, 박중휘 (2013). 시각장애 대학생의 대학 내 교육복지 지원 경험과 인식. **시각장애연구**, 29(2), 1-22.
- 김미선 (2011). 대학의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장애학생 도우미의 인식보고.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특수교육**, 10(1), 187-207.
-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영석, 정동영 (2015). 장애인 고등교육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인식 탐색: 교수 및 장애 학생 지원 담당직원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2), 97-120.
- 김정은 (2013). 장애대학생의 학업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 요인 분석. **학습장애연구**, 10(3), 159-179.
- 박성현, 김성수, 강명옥 (2008). **회귀분석입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백유순 (2005). 장애 대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서비스요구 및 지원 실태와 만족도 조사: 청각 장애 대학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151-169.
- 서동명, 박경수, 김주영, 조윤화 (2010). 장애인 대학생이 인식하는 장애인 교원 임용에 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0(4), 265-297.
- 오윤진, 이순민 (2013). 시각장애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의 관계 연구. **시각장애연구**, 29(2), 45-66.
- 유수옥 (2011). 대학생의 내적, 외적 요인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접근감 형성에 미치는 요인. **정서·행동장애연구**, 27(4), 205-230.
- 윤민우, 황경열 (2014). 장애대학생의 열등감과 대학생활부적응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4), 121-140.
- 윤현숙, 전병진 (2012).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교직원 태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4), 261-281.
- 이경림, 박재국 (2007).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실태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특수 아동교육연구**, 9(1), 289-308.
- 이성규, 양숙미 (2010). 장애대학생의 교육대학교 재학경험과 장애인 교원 임용제도에 관한 인식 연구. **직업재활연구**, 20(1), 25-41.
- 이성규, 양숙미, 전해연, 이종아, 강선진, 최성이 (2007). 장애학생 초등교원 진입확대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용역연구 2007-06.
- 이순민, 오윤진 (2013). 시각장애대학생의 학업적 상호작용, 학습지원서비스 만족,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29(1), 69-95.
- 이웅, 이주희, 이한나 (2011).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연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특수교육**, 10(3), 245-268.
- 이정애, 최용용 (2010).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진로포부 비교. **장애와 고용**, 20(2), 55-76.
- 이정진, 김성수, 이기재 (2015). **데이터정보처리입문**.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지경, 안성우 (2014).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및 수업에 관한 실태와 성별에 따른 인식. **특수 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259-284.
- 이환기, 김상준, 김기용, 신혜영, 추연구 (2004). 춘천교육대학교 장애학생 선발방안에 관한 연구. **학생 생활연구**, 26, 43-93.
- 이현수 (2009).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현황과 개선방안. **법과 인권교육연구**, 2(1), 92-109.
- 장영재, 김현중, 송종우, 심송용 (2014). **R 컴퓨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성희, 손승현 (2013). 장애대학생의 학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4(3), 261-292.
- 추연구, 이정남 (2012). **특수교육의 이해**. 서울: 양서원.
- 춘천교육대학교 장애인지원센터 (2012).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매뉴얼**.
- 춘천교육대학교 (2003~2014). **2014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자체평가보고서**.
- 춘천교육대학교 (2007~2015). **제1호~제9호 통계연보**.
- 황복선 (2011). 여가활동에서의 또래-친구 프로그램이 장애대학생의 사회적응 능력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11(1), 147-169.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Analysis of the Data for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Academic Situation of the Applicants
for the Special Entrance Programme
of C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 Youn Gu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Eun Young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As part of the enlargement of the handicapped personnel in government employment, the special entrance programme for the applicants with disabilities has been selected for the entrance examin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ince 2005 and the terms of admission restrictions against the handicapped were prohibited. Accordingly, the special entrance programme for the applicants with disabilitie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5 at C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better individualized teaching-learning support as well as broader recruit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have disabilities but expertise as well by analyzing the data of the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academic performance of the students who were admitted into our university by this special entranced programme since 2005 to 2015.

First of all, based on the archives of entrance examination, data of the applicants with disabilities were analyzed such as the changes of entrance examination types, comparison of enrollment between early admission test and standardized admission test, the types of the disorders of students admitted into the university, the passing grad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Secondly, data of the academic performance of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archives such as intensive course chosen by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llege dropout rates of 'leave of absence and expulsion', academic situations of students from practical curriculum with those of students from non-practical curriculum, pass rates of tests for teacher employment.

Key Words : academic performance,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pecial entrance programme for the applicants with disabilities